

## 산업자원부, 특허기술 사업화 위해 자금 지원

산업자원부(특허청, 중기청)는 특허로 등록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을 작년 보다 29.6% 증가한 1,47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 및 발명가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보다 앞서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화·실용화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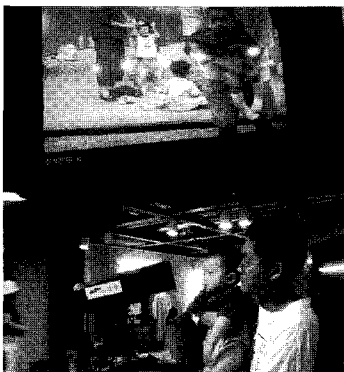
예를 들어 차량용 위성안테나 전문개발업체인 위월드(주)는 정부의 기술개발 및 특허사업화 투자알선을 지원받아 '초슬림형 이동식 위성안테나'를 개발하여 국내 이동식안테나 시장의 60%를 점유했다. 또한 특허기술 사업화 투자알선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주)드림투리얼리티는 선형 바코드(1차원 바코드)에 비해 100배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 출력시스템'을 개발·사업화하여 작년 한해 42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신약 및 건강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 신생 벤처기업인 (주)내추럴엔도텍은 사업화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받아 '하이몬'이라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작년에 30억원의 매출실적을 이룩했다.

이와같이 정부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제도가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연구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창업지원, 양산·시설자금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특허기술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이전·사업화까지 일괄지원(one-stop service)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자부(특허청, 중기청)는 지난달 14일 '특허사업화협의회(위원장: 김철두 산자부 차관)'에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1,135억)보다 29.6% 증가한 1,471억원 규모의 '2003년도 특허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하고, 금년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670억원)을, 특허기술 보유기업에게는 제품개발·실용화자금(700억원)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특허기술 보유자가 직접 사업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기술의 이전·평가 지원사업(83억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며,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한 외국출원 지원사업(15억원)과 연구개발단계에서 국·내외 선형기술에 대한 진단사업(3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지원 외에도 특허기술 보유자의 원활한 사업화를 돕기 위해 특허기술 보증·인증, 기술이전 자문, 판로개척 등을 종합·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만져보고, 몸으로 느끼는 어린이 체험 박물관



◀ '삼성어린이박물관' 4층에 위치한 어린이 방송국.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을 노래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이곳에서 표현할 수 있다.

박물관이 관람 중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만질 수 있는 공간을 잇달아 마련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체험(Hands-on) 박물관'이 속속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17일 종로구 세종로 국립민속박물관 옆에 문을 연 '어린이 박물관(www.nfm.go.kr/children/index.htm)'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박물관이다. 어린이 관람객들은 자석이 붙은 음식 모형을 이용해 상 차리기를 배운다거나, 나무로 만든 블록에 맞춰 초가집과 기와집

을 만들 수 있고, 담장 모형 앞에서 '문양 탁본 뜨기'도 할 수 있다. 민속박물관 최석영 학예연구사는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박물관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며 '직접 만져 보면서 민속 문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5월 개관한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www.museum.seoul.kr) 3층 회랑에는 '터치 뮤지엄'이 들어섰다. 노리개, 다듬잇돌, 맷돌, 맷돌 등 유물을 만져 보면서 그 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유물의 유래와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터치 뮤지엄과 연결된 '체험 공간'에는 조선시대의 해시계, 계측기구 등 각종 과학기구·놀이기구·생활도구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쿡을 되질하고 천청으로 양을 재볼 수 있다. 해시계 모형에선 직접 조명을 움직여 가면서 그림자가 몇 시를 가리키나 보면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난 95년 국내 최초로 어린이 체험 박물관을 표방하고 개관한 송파구 신천동 삼성어린이박물관(www.samsungkids.org)은 체험 전시물 교체를 위해 이달 19일까지 정기 휴관 중이다. 20일 다시 문을 열면 '동화 속으로' 코너가 추가되어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실제로 동화 내용을 재현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위터엑스포'가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되어 물펌프와 물길 만들기 등을 경험하게 된다.

박물관	개관시간	입장료	연락처
어린이민속박물관	오전9시~오후6시(화요일 휴관)	성인1,000원(18세 이하 무료)	734-1346(4118)
서울역사박물관	오전9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성인700원, 청소년300원	724-0114
삼성어린이박물관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중학생이상4,000원, 어린이5,000원	2143-3600
전쟁기념관	오전9시30분~오후6시(월요일 휴관)	성인3,000원, 학생2,000원	709-3114
국립서울과학관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월요일 휴관)	성인1,000원, 학생500원	3675-5114

## 우리나라 과학영재, 머리 큰 쌍구형 많다

한국의 과학영재들은 평균적으로 서양 과학자들처럼 머리가 큰 점 등 형태상 영재들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신체운동성을 나타내는 뇌간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산의 한서대 부설 얼굴연구소의 조용진 소장은 지난해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닌 초등학교 4~6학년 과학영재 120명을 대상으로 머리 크기와 구조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조 소장에 따르면 이들 과학영재의 머리 폭은 평균 153.1mm로 일반 학생보다 0.6mm 넓고, 미간에서 뒤통수까지 길이도 영재(183.1mm)가 일반학생보다 1.1mm 길었다. 우리 과학영재들은 뉴튼, 피테, 아인슈타인처럼 모두 왼쪽

전두엽부(왼쪽이마의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도드라져 있으며, 감각·시각·청각이 만나는 뇌의 부위인 연상회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왼쪽 뇌가 오른쪽 뇌보다 활동성이 높아 음식을 오른쪽으로 많이 씹고,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일반 한국인들과 달리 얼굴 가운데가 돌출하거나, 턱이 오른쪽을 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과학영재들이 귓구멍에서 정수리점까지의 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과학영재들이 서양 과학자들과 달리 순수이론 과학보다는 발명 등 감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발달한 것으로 해석돼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한국여성발명협회 제2대 한미영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기업정신) Professional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시회 개최 Impressive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에게 감동 Responsible 책임감과 신뢰를 원칙으로 한 고객만족 추구 Creative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로 업무수행

## “격조 높은 전시회를 열어 드립니다”

www.orientfair.co.kr



### 주요업무

- 전시개발 및 분석
- 광고 및 홍보
- 전시기획 및 운영
- 이벤트기획 및 운영
- 해외전시 프로모션



### 주요 전시회

- 국제주차장 및 주차설비 산업전
- MBC웨딩페어(춘·추계)
- 정부조달우수제품 및 디자인전
- 여성기업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
- 여성디자이너 귀금속 명품전
- 서울 국제 영·유아상품 및 정보 박람회

(주)동양전람  
ORIENT FAIR CO., LT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402호  
TEL (02) 780-0843 FAX (02) 780-0845